

Love Smile, Love Design Daniel Portuga

세상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일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일을 좋아하는 아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났다. 바다 건너 영국에 사는 디자이너 다니엘 포투가 (Daniel Portuga)가 바로 그런 특이한(?) 존재다. 'I LOVE MY JOB'을 외치는 그의 크리에이티브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클 이예근 기자 yekn@websmedia.co.kr
디자이너 김미연 sandmy@websmedia.co.kr



이름 다니엘 포투가 (Daniel Portuga)
포트폴리오 사이트 www.danielportuga.com

지역 영국 런던

수상경력 4 shortlists - Cannes, FWA, 2 shortlists - the BIMA Awards (British Interactive Media Association), 1 shortlist - -LIA, 2 shortlists - MM online, 1 gold & 1 silver - the International Gramado Festival, bronze - ABEVD, 2 silvers - Desencarnes, 2 golds - Peixe Grande, bronze - Ibest grand prix, 2 golds - Ibest, 2 golds - American

Design Semi Annual Design Contest

클라이언트 Accor, Avon, Boomerang TV, Cartoon Network, Coca-Cola, Ibis and Mercure Hotel, Itau Bank, Itaucard, Lloyds Bank, Mc Donald's, Nestle, NHS, Nokia, Petrobbras, Philips, Post-it 3M, Sky TV, Samsung, Santander Bank, Roche, Telefonica, The Haystack Group, Volkswagen and many more

다니엘 포투가 디자이너는 현재 런던에 살고 있지만, 브라질 태생의 열정적인 남미 남자다. 얼마 전 RAPP LONDON의 시니어 디지털 디자이너를 맡기도 한 다니엘은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Faculdade de Belas Artes 에서 광고, 마케팅,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공부하면서 온라인 마케팅과 디자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현재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BIO 에이전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 브라질의 온라인 마케팅 에이전시인 Rapp Digital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수퍼바이저와 시니어 아트디렉터로 일하는 등 남미와 유럽을 오가며 열정적으로 활동 중이다.

w.e.b. 다니엘, 어떤 이유로 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하게 됐나요?

다니엘 포투가(이하 다니엘) 제가 12번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흥미를 보인 것은 1~2살 때부터였어요(웃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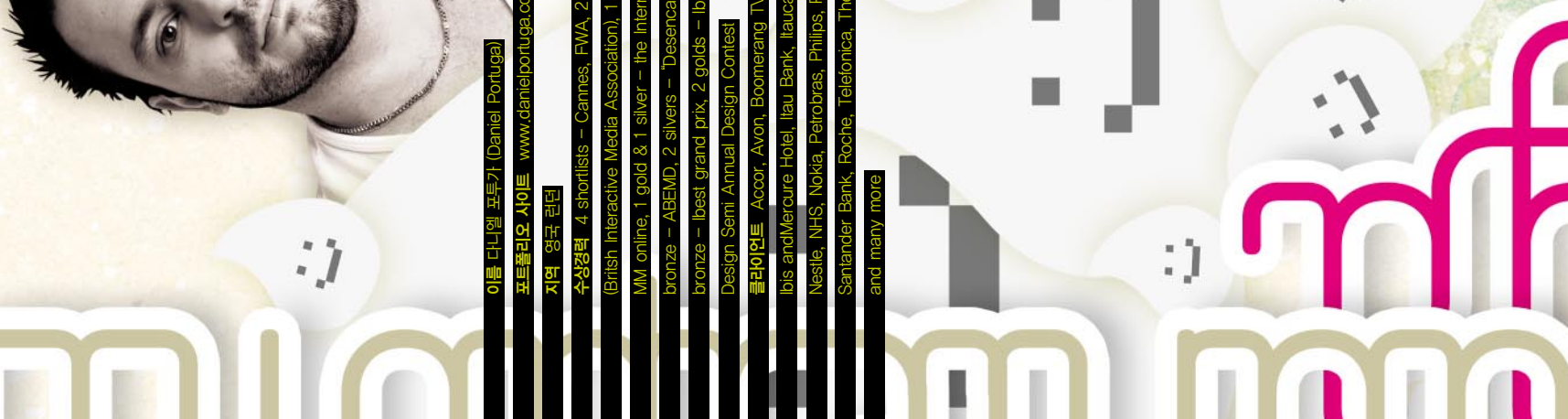
한테 색연필을 쥐어주니 장난감을 갖고 놀기보다는 색연필로 신문의 빈칸을 색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10대 시절에 무엇이 될지에 대한 고민하기도 했지만, 뭔가를 만들 때 느끼는 행복 중독성, 그리고 저의 끝없는 디자인 애정과 제 작품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예술가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w.e.b. 우리에게 당신의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말해줄 수 있나요?

다니엘 웃으면서 일한다는 것은 항상 모든 일을 쉽게 만들어주는 엔도르핀이 됩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여행하며 공유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배우려고 항상 쓰며 그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매일 웃음과 함께하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거나, 우리 꿈의 첫날이 될

danielportuga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이폰으로 메모하고 사진 찍는 일이에요. 트위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다음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w.e.b. 자신이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점이 좋은가요?

다니엘 I LOVE MY JOB.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이디어가 폭발처럼 밀려올 때입니다. 맥(Mac)앞에 앉아 그 아이디어를 한실로 끌어내 점차 윤곽(레이아웃)을 잡아가는 과정도 좋아해요. 어려운 점은 짧은 시간 내 레이아웃을 마쳐야 한다는 것이지만요.

w.e.b. 우리도 당신 같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뛰어난 감각을 통해 시장을 파악해야 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디자이너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실험을 한실로 끌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을 사랑해야죠. 제 요점은 '일', '일', '일', 그리고 '일'입니다. 재능이 발전하는 것은 오로지 열심히 일한 후에 나타나거든요.

w.e.b. 그렇다면 '좋은'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니엘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지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와 함께 일할 때는 시계처럼 모든 분야가 중요하고 저마다 시계의 부속처럼 맞물려야 합니다. 뛰어난 디자이너는 좋은 팀의 중요한 부분이고, 팀원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저 역시 여러 분야에 있는 친구들 -Italo Borges, Rafael Morinaga, Gabriela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전 스스로 새로운 것을 유지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일에 대한 압박조차 말이죠.

우리는 삶의 반 이상을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왕 보내는 시간 재밌게 보내는 것이 제 신조입니다.

w.e.b. 그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명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보다 나은 것은 확실합니다. 같은 주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좀 더 멋진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는 인종, 나라, 사회적 지위,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죠.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에 대한 체계와 마감일을 철저히 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모든 일을 좀 더 쉽게 만듭니다.

w.e.b. 일을 하다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다니엘 전 한 번도 '막힌다'는 단어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네요. 차분하고, 침착히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말이죠. 독서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찾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 처럼요. 그리고 당시 팀과 함께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항상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Daniel Portugal의 문구용품 디자인

포트폴리오 사이트 www.danielportuga.com



Cartoon Network - 4 online games and layout the enter screens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와 만족스러운 결과는 명 확한 보고서에서 기인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만 들기 전에 클라이언트를 연구하고 경쟁사 그리 고 프로젝트의 예산을 분석하



The Bio Agency 웹 사이트

조, 전 기획단계부터 그러기 위해 노력합니다. IT, 미디어 부문, 클라이언트의 다른 것 까지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한 데 모아 가능성 있는 아이디 어에 대해 생각해보고 레이어 웃을 잡고 프로젝트에 참가한 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이디어는 진행되죠.

w.e.b. 디자이너에게 일하는 환경은 매우 중요 하다고 들었습니다. 일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다니엘 앞서 말했지만, 일하는 분위기가 진짜 중요해요. 전 항상 동료와 농담으로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웃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 모든 프로젝트에 그들이 주인이며 리더가 되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항상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라고. 이런 질문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또한 전 동료가 아닌 친구로 친해지려고 합니 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죠. 사람은 자유롭게 만, 책임감도 있어야 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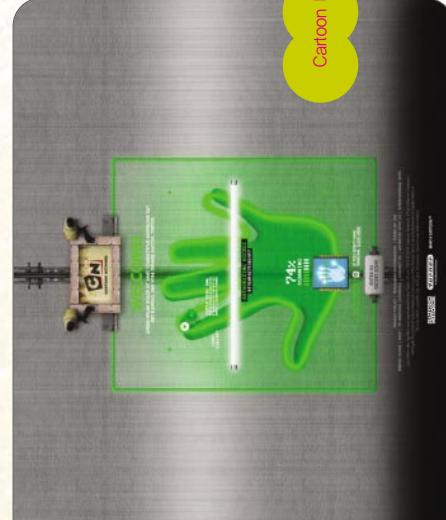
Amarante, Rodrigo Fante, Melissa Sophia, Mauro Letizia, Simon Medicott, Mariana V. Gomes, Thiago Barreto, Fernando Teixeira, Bernardo Alves, Thais Lapastini, Ricardo Aum, Carlos Brito, Daniel Esteves, Rafa Ferro, Chico Cardoso, Luis de La Orden- 과 함께 하면서 성취감도 얻었습니다. 결코 혼자 자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w.e.b. 평상시에는 어떤 스타일로 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니엘 연필과 종이로 드로잉하는 전통 방식을 좋아해요. 먼저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그려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과정 하나 하나가 프로젝트를 보다 좋게 만들어 준다고 생 각해요. 이 작업 이후에 컴퓨터로 옮겨서 디자 인 작업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전 항상 마감 일을 지키려고 해요.

w.e.b.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 또 그 영감 은 어떻게 실현하나요?

다니엘 제 영감은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곳에서 나와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전 약 25개국을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어요. 다른 문화를 아는 것은 경험 을 바꿔보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확실히 영감을 주는 것이 분명해요.



Cartoon Network 온라인 게임



NHS Humana 웹 사이트



Samsung 제품 마이크로사이트

w.e.b.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나요?

다니엘 전 특히 한국 자동차 디자인을 좋아해 요. 모두 대단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요. 높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까지. 그리고 전 브라질 사 람으로 축구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2002년 한 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활약을 잘 알고 있습니

